

를 대신해 유업체와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유업체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우유가공 및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 할때 우리 낙농산업은 온전

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분투할때 우리나라농가는 진흥회를 믿고 신뢰

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낙농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로 출항하기를 바란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아주 평범한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다소 출발이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닻을 올려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가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기를 바란다.



김정대
경기 김포 삼마목장

오랜 진통 끝에 낙농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어 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축산 정책은 축산인을 위하여 수립되어 왔지만 많은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수명이 짧고 부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현장을 외면한 채 책상에서 상상의 그림을 구상하고 채색하다 보니 동양화를 그리려고 계획한 그림이 서양화가 되어 버린 웃지 못할 일이 종종 벌어져 왔던 것이다.

낙농진흥회가 설립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그 동안 산적되어온 낙농현안의 많은 문제점들이 하루 아

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낙농진흥회를 설립하려 하던 때와 지금의 우리 낙농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몇몇 선진 낙농국에서는 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낙농여건에 완벽히 맞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선진 낙농국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단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모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우리 낙농에 관계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해 왔던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낙농진흥회의 출발과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자.

1999년 1월 1일부로 출범한다

는 낙농진흥회가 과연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 인선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걸로 안다. 선체가 완성되었다고 그 배가 승무원, 승객없이 선주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을까?

설사 항해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예비 운항을 통하여 실제 운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점검한 후에 정식 운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출항을 앞둔 선주의 의무라고 본다. 이러한 예비 상식을 무시하고 운항을 결행했을 때의 결과는 눈앞의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또 우리 승객들 역시 지금 당장의 실익을 떠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인정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저없이 함께 승선해야 옳은 태도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아주 평범한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다소 출발이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닷을 올려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가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기를 바란다. ㉞

낙농가·유업체와 삼위일체 하는 낙농진흥회가 되길 바란다.

99년 1월 낙농진흥회가 출범하게 됨에
우리 낙농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낙농가·유업체가 삼위일체가 되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낙농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순식
전주원주낙우회장

우선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7년 낙농진흥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8년은 IMF에 의한 영향이 우리 낙농업계에도 미쳐 일부 유업체가 부도를 내고, 우리 낙농가들은 원유대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하루하루를 좌절로 보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동안 농·소·정 모두가 협력하여 저능력우 도태, 송아지 수매, 분유 대북지원, 우유 소비운동, 낙농자조금에 의한 홍보대체를 전개함으로써 다행히도 최근에는 낙농산업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40여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IMF체제에 의해 다시 있어

서는 안 될 최대의 위기를 맞은 98년을 겪으면서 99년 1월 낙농진흥회가 출범하게 됨에 우리 낙농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수매·비축·방출 등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원유와 유제품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 해주었으면 한다.

낙농진흥회는 우리 낙농가에게는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원유의 계약 생산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나 시행 초기인만큼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우선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제도화하고 집유 일원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낙농가와 유업체가 분쟁이 많

은 원유검사를 공영화하고 낙농가는 철저한 사양관리와 과학적인 생산으로 우유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국제품과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이겨나가며, 유업체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하는데 노력을 거듭하여 낙농진흥회·낙농가·유업체가 삼위일체가 되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낙농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낙농진흥회의 설립을 놓고 많은 문제제기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이는 낙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의 조언으로 받아들여 낙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낙농진흥회가 되었으면 한다. ㉞